

통일을 말하다

먼저 온 통일

희망을 꿈꾸다

소식을 전하다

즐거움을 만나다

공감을 나누다



작은 통일 어떻게 추진하나?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킴에 따라 통일대박을 향한 '대한민국호의 위대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에 돌입하였다. 70여년을 분단된 구조에 적응하며 살아야했던 한민족에게 통일기반구축을...



민주평통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3차 탈북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주제로 한 작품, 북한주민도 공감할 것



"통일준비 위해 남북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통일을 말하다

① ② ③ ④

포커스

작은 통일 어떻게 추진하나?

먼저 온 통일

① ②

어깨동무하기사업 멘토링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3차 탈북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통일시대



웹진다운로드



지난호보기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킴에 따라 통일대박을 향한 '대한민국호의 위대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에 돌입하였다. 70여년을 분단된 구조에 적응하며 살아야했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은 지난 10월 10일 김철수 단장의 H+양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탈북소년들을 위한 삼정학교(구로구 구로동 소재) 재학생과 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검진 봉사를 ...

+ 더보기

+ 더보기

희망을 꿈꾸다

① ② ③

또 다른 시선

영화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소식을 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한독 평화통일포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이 통일의 밑거름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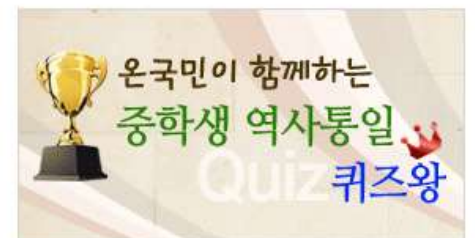


웹툰

세계최고의 호텔브랜드 'HAN OK'



이벤트



독일 아헨(Aachen)에서 태어나고 자란 15세 한인교 포 소년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동독에서 차와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고, 서독인들은 손을 흔들거나 울고 ...

+ 더보기

즐거움을 만나다

①②

통일레시피

담백한 맛이 살아있는 '개성편수'



개성은 고려시대 수도였던 만큼 보쌈김치, 설렁탕, 추어탕, 우메기, 경단, 편수, 약밥 등 다양한 요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개성 편수다. 개성 지방의 편수는 둥근 만두피에 ...

+ 더보기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맞아, 독일통일과 동·서독 통합정책을 돌아보고 한반도 통일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2014 한·독 평화통일포럼'이 10월 15일(수) 독일 베를린 독일 연방의회 기만·기사당 회의실에서 ...

+ 더보기

공감을 나누다

①

'북한음식 자랑하기' 당선작

어복쟁반, 두부밥과 인조고기밥, 평양순대



북한음식으로 유명한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입니다! 냉면이나 만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계시죠. 제가 봉사활동 나가는 곳에 ...

+ 더보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당첨자 >



작은 통일 어떻게 추진하나?

김 중 호 박사(한국수출입은행)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킴에 따라 통일대박을 향한 '대한민국호의 위대한 여정'은 본격적인 출항 태세에 돌입하였다. 70여년을 분단된 구조에 적응하며 살아야했던 한민족에게 통일기반구축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화석 속에 갇힌 새의 날개를 펼쳐 보려는 것만큼이나 힘들어 보인다. 그것은 무모한 환상일까, 아니면 실현가능한 비전일까.

그 답은 '통일을 향한 낯선 여정'을 준비하는 선장과 선원들의 열망과 결단에 달려 있다. 현재 선장의 방향 제시와 출항 준비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능숙한 선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보지 않은 길을 헤쳐갈 전략을 짜고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통일은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다. 그리고 단번에 통일이라는 거대한 산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오늘 작은 통일을 실현하면 내일 큰 통일에 이를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국민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3월28일 오전(현지시간) 작센주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 교수·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일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은 주로 정치영역에서 다뤄져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민감성으로 인해 통일 담론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통일은 경제영역에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고 곧 이어 대한민국의 전 영역에서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통일의 가치가 재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은 한반도 내부에서 남북 양측이 경험해 온 분단경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한반도 외부에서는 세계경제의 역동성 증대와 새로운 시장 형성의 촉진제로서 재인식되고 있다. 통일의 가치가 재해석되면서 통일의 매력 또한 증대하고 있다.

통일 구상의 방향은 명확하다. 그것은 지난 3월 박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대로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장벽 허물기이다. 문제는 거대한 남북간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이다. 과거에는 통일의 장벽이 휴전선의 철책이었겠으나 오늘날 그것은 다름 아닌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 주민의 삶은 1인당 GNI를 기준으로 20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독 경제력의 3분의 1 정도에 머물던 동독을 지난 20여년동안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 적지 않은 고통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남북간 격차는 남북 통일의 최대 장벽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북한 경제의 비정상 상태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비인도적 삶을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남북협력의 초점을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북한 주민들을 잘 돌보도록 북한 당국에게 촉구하는 것은 한발 앞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경험한 남한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므로 따끔하지만 병을 낫게 하는 침(針)과 같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목표가 되는 것은 바로 신뢰구축이다. 과거에는 '우리 민족끼리' 협력이 강조되었으나 양자간 입장이나 인식 수준의 차이로 인해 수많은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남북간 신뢰는 조그만 변화에도 금새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제는 남북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남북간 신뢰구축의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인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농·축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UN 기구나 국제 NGO들이 북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정부나 NGO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인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촉진하려면 우리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경제·금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금융 지식과 노하우가 북한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남북간 거리를 좁히는 데 초점을 두는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북한 당국에 의해 폄훼되고 거부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김정은 제1비서가 공약한 바대로 북한 주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는 지름길은 바로 핵개발에 쏟아부었던 자원을 주민 경제 활성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북한 주민들을 잘 돌보도록 북한 당국에게 촉구하는 것은 한발 앞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경험한 남한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므로 따끔하지만 병을 낫게 하는 침(針)과 같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마라톤에 참여하려는 선수에게 기초체력 준비가 필요하듯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작은 통일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네 가지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통일 홍보체계 강화, 통일준비 인력 육성, 통일 자원 조달 방안 수립,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 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2015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예산을 11.4% 증액한 상태이다. 기존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미래 남북간 협력 사업을 위해서도 예산을 책정한 상태이다.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으로 제시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위한 예산도 준비되어 있다. 향후 남북 고위급 대화가 진전되어 주요 현안들의 해법이 마련될 경우, 우리 정부는 과거의 협력 사업 재개와 더불어 새로운 미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라톤에 참여하려는 선수에게 기초체력 준비가 필요하듯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작은 통일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네 가지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통일 홍보체계 강화, 통일준비 인력 육성, 통일 자원 조달 방안 수립,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 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3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남북대화는 점(點)이 아니라 선(線)이다. 대화의 연속선이 바로 통일과정이다.

비록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여름내내 이어진 북한의 도발 언행으로 인해 그동안 통일 담론의 확산 속도가 억제되긴 했으나 머지않아 통일의 물씨는 시대의 바람을 안고 활활 타오를 것이다.

〈사진제공 : 청와대〉



'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내외 대북정책 전문가 60여명 초청, 통일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국정치학회, 통일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4년 10월 10일(금)~11일(토) 양일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제네바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제네바합의 20주년을 맞아 북핵문제와 인권문제, 동북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한반도 통일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들 6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경대수석부의장은 환영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기초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며 "학술회의를 통해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정책적인 제언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네바합의는 북한을 상대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여정은 멀어 보인다"며 "통일은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완성된 민주주의와 사회구성원들의 자유 의지를 적극 발현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현경대수석부의장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제네바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

- 1세션 :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 교훈과 과제
- 2세션 : 대북정책의 새로운 이론 모색? 기능주의를 넘어서
- 3세션 : 해외 통일 사례 관련 연구
- 4세션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 5세션 : 북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관여 전략
- 6세션 :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노력
- 7세션 : 한반도통일을 위한 동북아 외교안보환경
- 8세션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전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 촉구



▲ 로버트 갈루치 교수

국제학술회의의 첫 번째 세션은 1994년 이뤄진 제네바합의에 대한 평가로 막을 열었다.

당시 미국 북핵특사로 협상을 지휘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네바 합의를 도출할 당시의 의제는 '북핵 위기' 하나밖에 없었으며, 인권문제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과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갈루치 교수는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북한은 매년 핵무기 4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제네바합의를 통해서 8년간 이러한 활동을 동결할 수 있었다고 그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미국의 전략적 인내나 봉쇄도 북핵 위협을 감축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핵 해결책은 협상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제조건 없이 조용한 논의를 시작하면, 북한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대가로, 궁극적인 핵 포기를 전제로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북한 무시 정책 보다는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소 고문(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로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5개국이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핵이라는 보험에 대한) 북한이 지불할 보험료를 높인다면 북한도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 천영우 고문



윤영관 서울대 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는 "북한은 리비아나 시리아와 달리 서구로부터 경제적으로 고립됐기 때문에 경제제재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경제특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현재 노력을 남한이 뒷받침해서, 북한이 서구에 경제적으로 더 많이 의존토록 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임혁택 교수는 "미국이 합법적 대화상대로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은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6자회담을 통해 북미 간 신뢰구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영관 교수



▲ 임혁택 교수

프랑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전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이 UN총회를 보이콧



하지 않고 오히려 반격에 나선 점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구축정책이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UN 북한인권문제 제기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에 북한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프랑크 지누지 대표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에버슈타트 박사(AEI 미국기업연구원)는 "미국의 대북경제원조가 북한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실패했다"며 북한의 경우 문맹률이 낮은데도 경제수준이 이 처럼 악화된 것은, 제도와 기업환경의 문제라며 특히 북한정부가 경제파괴적인 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에버슈타트 박사



▲ 조동호 교수



▲ 고유환 교수



▲ 김태현 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식량생산이 늘고 물가도 안정적이어서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암시장으로 인해 공식 계획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경제특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경제는 매우 커다란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크 지누지 대표도 '개성은 북한의 미래고, 평양은 북조선의 과거'라는 한 북한 여대생의 말을 인용하며 경제성장은 북한 엘리트층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기회로 다가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폐기위주의 비핵화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결국 북한사회를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화폐개혁조치와 같은 북한내부의 이익갈등을 활용하는 대북정책이 유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경제제재와 유인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김 교수는 "이미 가해진 제재는 협상력을 잃게 된다"며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서 북한이 두 가지 옵션 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토마스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 교수(전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야말로 동북아에 있어 가장 불안정한 요소라며, 다자적 안보메커니즘을 통해 중국이 지속적으로 엄격한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대북 관여 전략은 어떻게?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의 관여 전략에 대해 서는 '중국이 매우 중요한 행위자'라는 논의가 많았다. 먼저 리난 박사(중국 사회과학원)는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을 요청해왔으며, 원자바오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중국 경제개혁, 개방정책에 대해 피력함으로써 경제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었다"고 말했다. 리난 박사는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북경의 완충지대로서 의미를 갖지 않으며,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상당한 정도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과거와 미래가 혼재돼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진핑시 대 중국은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동북아의 '불안정요소'로 보고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으며, 북한은 앞으로도 핵군비확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국이 국가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면 북중관계는 항상 긴장하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대학교 지아 칭꾸오 교수는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변화를 원치 않는다면 "북한 핵개발을 저지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 이 된다는 여론을 통해 대북정책에 강경기조가 반영되고 있지만, 북한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우 고문은 중국이 비핵화보다 북한정권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중국은 비핵화와 관련, 많은 카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EU적 관점에서 관여전략을 분석한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박사(스웨덴 ISDP)는 "북한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EU에 관계 개선을 계속 요청해왔지만, 유럽은 미국보다 현실적이고 인권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최진우 교수는 유럽연합의 외교정책은, 노머티브 파워(normative power ; 규범권력)로서의 정체성을 갖지만 과거에 비해 위축된 것 같으며, EU는 북한문제에 있어서 참여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관여 전략과 관련해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북일관계에 있어 과거사와 대북경제지원, 핵무기개발 등 기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재건프로젝트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경우, 연세대 최종건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인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고립이 심할수록 북한은 더 공격적이었다"며 "6-1매커니즘은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포용하고 6자회담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문제, 북핵문제와 연계 VS 별도 논의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논제 중 하나는 북한의 인권문제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핵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별도로 떼어서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분했다. 고려대학교 김성한 교수는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북한 무시 전략은 북한의 핵능력고도화를 저지할 수 없으며, 북핵



▲ 리난 박사



▲ 박형중 박사



▲ 최진우 교수



▲ 지아 칭꾸오 교수

문제는 대북 제재와 연계시켜 그 자체로서 돌파구를 찾고, 인권문제는 이와 별도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도 다자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하지만, 인권개선과 비핵화를 연결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며, 만약 협상테이블에 이를 올리면 북미대화든 6자 회담이든 대화의 초점을 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프랑크 자누지 대표는 인권 문제와 비핵화문제는 서로 분리시켜 논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리수용 외상을 유엔으로 파견해서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갈루치 교수도 이제는 논의에 반드시 인권문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인권문제만을 지나치게 앞세울 필요는 없지만 따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전략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전략'에 대한 논의에서는 양시위 박사(CIIS, 중국 외교부 전 한반도담당국장)가 한반도문제의 불확실성 즉,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느냐 영구적 핵무장화로 가느냐하는 핵문제 의 불확실성 △한반도문제의 주요 당사국간 평화(안보)레짐 설립의 불확실성 △연합제 혹은 흡수통일, 한 체제 혹은 두 체제 등 통일의 형태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 3가지 불확실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 때문에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정권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관점에 기초해 정책을 수립하되, 임기에 연연하기보다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의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양시위 박사



▲ 박찬봉 사무처장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이 실패한 것은 문제의 근원이 아닌 표면의 증상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은 주변국들과 조약에 의해 분단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2+4와 같은 국제기구에는 필요 없고 남과 북이 합의하면 된다"며, "북한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방법에 대해 남북간 대화를 진행하면서, 남한은 통일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통일'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했다. 그는 "국가가 융성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과거의 통일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작은 차원에서, 개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통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며 "기능주의 통합방안에서 벗어나 작고 실천 가능한 이슈부터 시작 하되, 북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경제적, 법적, 군사정치적 제도화 관련 논의

한편,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국내 학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섹션을 통해 '법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남북 간 제도화 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박 명규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소장은 "결국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에서, 평화통일 가능성을 생각 했을 때 가장 중 요한 것이 바로 제도화이고 이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경제적 통합의 제도화를 위해 북한의 경제적 성장,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전, 남북경 제통합 등 세 가지를 순서대 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 시장경제 도입은 단계적이고 점진 적으로 이뤄야 하며 집단농장의 가족농업화, 시장거래 사유화, 기업의 자유화를 이루는 것이 초기이행에 가장 중요한 정책과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적 자 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북한의 비공식 부분(유통중심의 시장제도)에 대한 공식화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 박명규 소장



▲ 김병연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는 "2000년 이후 남북합의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 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실효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며 남북한의 현실에 기초를 두고 남북교류협력을 안정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교류 분야별로 남북합의서를 보완하고, 국제사회 와 연계 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개성공단의 경우 특 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효원 교수



▲ 김근식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남북관계를 중단, 퇴보시키고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그 자체가 안고 있는 정치군사적 대 결구조 때문이며, 분단체제 하의 정치적 대결 역시 그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정치 적 남북대결이 완화될 경우야 비로소 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제도화 되고 비가역적 진전을 이룰 수 있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관계를 중년부부에

비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과 긴장고조 는 가능한 억제돼야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버슈타트 박사

(AEI 미국기업연구원)



Q. 이번 학술회의에 참여하신 소감은?

1975년 서울을 처음 방문한 이후 40여 년간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줄곧 지켜봐왔어요.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오는 일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Q. 오늘 발표한 주제의 핵심은?

저는 오늘 북한의 경제성과와 북한 내 해외원조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을 발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정보 자료들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무척 머리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때로 이러한 작업을 하다 보면 북한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나오는 자료는 국제 무역에 대한 모든 표, 통계, 수치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 무역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군사 부문처럼 중요한 부분도 빠져 있고요. 공식적인 통계 정보는 꽤 정확합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Q.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간 북한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북한간 경제 격차는 점점 벌어져 왔고요. 따라서 통일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 똑똑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과 한국은 전쟁 상태라고 믿습니다. 이는 휴전 후 6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에 대해 복합적 접근을 취합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원하기도 하고, 때때로 평화적 외교를 원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세적 태도를 취하는데, 북한은 계산을 통해 군사적 행동을 취합니다. 자금을 얻기 위해 대표단을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전을 치루는 거지요. 북한의 정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행 : 김윤정 2030청년 자문위원(한국외국어대)〉

세계 최고의 호텔브랜드 'HAN OK'

이택중

외국인 청년대표 열 분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숙박하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류'와 '통일효과'로 한국 관광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첨단 호텔이 있고 개성역사지구나 전주에는 한옥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은가요?





이 오빠~ 강남스타일~♪ 저는 서울의 첨단호텔이 좋아요!
호텔은 뭐니뭐니해도 편안한 게 최고잖아요.



통일한국에 관광 왔으면 그 나라의 멋을 느낄 수 있어야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개성역사지구를 안 가봐서 그래.
거긴 임진왜란 전에 지어진 한옥도 있다고.



이 오빠~ 강남스타일~♪ 저는 서울의 첨단호텔이 좋아요!
호텔은 뭐니뭐니해도 편안한 게 최고잖아요.



가나 오취리

통일한국에 관광 왔으면 그 나라의 멋을 느낄 수 있어야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개성역사지구를 안 가봐서 그래.
거긴 임진왜란 전에 지어진 한옥도 있다고.



오스트리아 타일러

호텔브랜드 'HANOK(한옥)'은 얼마 전에 세계여행잡지가 뽑은 '세계 최고 전통호텔'로 뽑혔잖아요. 멋과 스타일에서 품격을 잃지 않는 한옥이니까요.



맞아요. 통일 전에는 보존만 잘돼있지 시설이 낙후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한의 첨단시설과 글로벌 서비스가 접목돼 한옥 특유의 아늑함에 편안함이 더해졌죠.



서양식 호텔과 달리 한옥은 정원이 있잖아요. 비오는 날 처마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마당에 눈 쌓이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한옥 뒷마루에서 한우고기 구워먹고 싶네요



한국최고의 관광호텔은 'HAN OK! 만장일치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신용석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북한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을까?

요즘 TV 뉴스를 보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즉 '요우커(遊客)'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실제로 강남이나 명동을 방문해 보면 양손에 쇼핑백을 잔뜩 들고 화장품이나 명품 쇼핑에 열중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이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시내 등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느덧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연간 1,000만 명을 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 북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다. 하지만, 그 방문객의 숫자는 매우 적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숫자는 북한에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대략 10만명 수준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관광은 자유롭게 돌아 다니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핵심인데, 북한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여야 하며, 숙박이나 도로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없는 방문지인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조금씩 관광정책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 것이다.



✈️ 북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 중

북한이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약 5,000~6,0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획득의 통

로가 없어져 버리는 큰 손실을 입은 것이다. 주된 외화수입원을 잃어버리게 되자, 북한은 남한관광객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였다.

북한은 평양과 상하이, 하얼빈, 시안을 잇는 노선을 연이어 개설했으며 라선-금강산 유람선 관광, 칠보산 관광열차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았다. 덕분에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숫자는 2009년 9만6,000명에서 2010년 13만1,000명, 2011년 20만 명, 2012년 24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다음 해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숫자가 연평균 30~4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남한과 북한이 멀어진 사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성큼 가까워진 셈이다.



다만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패턴은 남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들의 가장 큰 방문 동기는 쇼핑이다. 이들은 품질이 좋고 우수한 화장품, 전자제품 쇼핑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다. 반면에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낙후된 북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 개방경제 이전 중국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즉 북한 방문 중국관광객들의 방문 동기는 과거에 대한 '향수(Nostalgia)'인 것이다.

관광을 통한 남북협력, 그리고 평화증진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한 번 해보게 된다. 외국관광객들이 북한을 보고 다시 남쪽으로 와서 남한을 보는 상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외국인들에게 남북관광 공동VISA를 발급하여 평양과 금강산을 둘러 보게 하고 남북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구경시킨 후에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건너와 서울과 제주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관광 상품은 오직 한반도에서만 가능한 상품이다. 요즘은 품질보다 독특함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다.



물론 지금도 드물기는 하지만 남과 북을 같이 볼 수 있는 여행상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출시된 이런 상품들은 북한을 방문한 후에 다시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으로 돌아간 후, 중국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코스이다. 자연히 여행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일정이 길어진다.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과 북이 한반도 관광발전과 평화증진을 위한 협의를 통해서 육로로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공동 VISA를 발급한다면 그건 획기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통과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육로로 통과하는 경험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체험일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관심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관광가능지역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방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관광은 물류와 다르게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이 엄격히 통제를 하더라도 북한주민과 관광객들의 접촉을 100% 차단할 수 없으며, 북한에 자본주의 경계를 학습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남한과 북한의 관광산업 규모가 커지고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불안감이 감소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남과 북의 관광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증진,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그리고 북한의 개방 유도. 이것이야말로 요즘 정부가 말하고 있는 '통일 대박론'의 실제적 모습이 아니겠는가? 관광에 대한 시각을 한반도, 아니, 유라시아 대륙으로 넓혀서 크게 가져보자.

〈사진제공 : 연합뉴스〉

1) 출처 : 중국 국가 여유국

탈북청소년에게 친구·가족·스승을... 민주평통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사업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구(詩句)처럼 청소년기 아이들은 누구나 성장통을 겪는다. 그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 남한에 어렵게 뿌리내린 탈북청소년들은 아마 훨씬 더 힘든 시간의 터널을 건너고 있을 것 같다. 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줄 민주평통 멘토 자문위원들의 열정이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번호에서는 멘티 개개인의 연령, 가정환경, 특성, 진로에 맞게 활발한 멘토링을 펼치고 있는 멘토 자문위원 6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릉시협의회 이재덕·전제원 자문위원

“초등학생 멘티에게 아빠의 빈자리 메워주는 삼촌 같은 멘토”

이신호(가명) 학생은 북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년 전 엄마와 함께 남한에 정착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이 있어 산만한데다, 기초학력이 부족해 학령을 1년 낮춰서 입학해야 했지만, 든든한 아빠, 삼촌 같은 멘토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부쩍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재덕 멘토 (자문위원)

신호는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1년 늦게 학교에 진학해야 했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산만하고 덜렁대던 신호의 학교생활이 걱정돼 바로 담임선생님을 찾아가봤는데 한글 받아쓰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안경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안경원에 데리고 가서 안경부터 바꿔줬습니다. 또 흑여 북한에서 왔다고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 반 아이들에게 간식도 몇 번 들렸고, 얼마 전 생일 때도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신호 엄마도 아직 우리나라 실정을 잘 모르다

보니 가정방문을 통해 신호 학교 준비물 챙기기, 장보기, 변기 뚫기와 같이 사소한 것들도 일일이 알려줬어요.



지난 여름방학 때 어깨동무 멘토링캠프에 다녀왔는데 같이 노래나 게임, 통일글짓기도 했고 북한이탈주민 부모들과 저녁에 어울려 맥주 한 잔씩 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눴어요. 또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도 하는 등 캠프 프로그램이 아주 좋았습니다. 얼마 전 추석 명절 때는 시장에 데려가서 함께 호떡도 먹고 추석에 입을 새 옷도 장만해줬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멘토링을 지속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바쁘면 그냥 지나치게 될까봐 달력에 표시해두고 많게는 월 3회, 평균 2회 정도 만나고 있어요. 전화통화는 더 자주 하는 편이구요. 바빠서 한동안 보지 못했을 때는 "삼촌 본 지 오래됐다"고 말해요. 저를 기다렸던 거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신호 아버지의 빈 공백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링을 시작할 때 선입견을 갖지 않고 마음을 여니 까 서로 빨리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내가 멘티와 그 가족을 위해 꼭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멘토링이 원활치 못한 것 같아요.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보면 멘티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신호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삼촌을 만나서 운이 너무 좋아요"라고요.



신호를 처음 만났을 때 활달한 아이인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촌형과 신호 두 명에게 태권도 학원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좋아하는 놀이, 음식 등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놀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 체험 등 프로그램만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 만나고 안아주는 것이 최선 아닐까요?

여름캠프에 가서 글짓기를 했는데 신호가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편지를 쓴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아이들도 우리와 같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요. 앞으로도 저희 멘토들이 삼촌역할을 하면서 신호가 사회인이 될 때까지 계속 들봐주려고 합니다.

멘토링을 하기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해요. 알고 보면 우리 남한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회성 행사를 열고 선물주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민주평통 청년위원들이 이들의 상처를 잘 보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서 다음 통일세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신호에게 친구들이 생겼고, 태권도도 너무 좋아해요”

“남한에 온 지 3년 됐는데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 멘토선생님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상처받고 힘들 땐 후회도 했는데, 가족같은 멘토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모르는 표현 못할 정도로 좋아요. 특히 신호가 선생님들을 잘 따라요. 태권도 학원비도 지원해주시는데, 오늘도 신호가 학원에 다녀오더니 태권도 심사를 봤다며 자랑도 했어요.(신호엄마)."



전북 전주시협의회 강혜진, 김석곤, 김옥숙 자문위원

시각장애 가진 선화,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뤄주고 싶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늘 환한 밝은 미소를 가진 선화(가명). 선화는 태어난 지 7개월 때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 사촌 외에는 친구가 없었던 19살 선화에게 올해 언니와 이웃아저씨, 이웃아줌마가 생겼다. 멘토들은 밴드를 활용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복지사를 목표로 하는 선화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강혜진 멘토 (자문위원)

민주평통 2030청년위원이 되었지만 학생신분이다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청년위원장님 권유로 선화의 멘토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 분식집이나 카페 등에서 만나는 게 전부지만, 선화도 저도 멘토링시간이 즐겁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되도록 다정하게 말을 걸려고 노력했고, 선화의 연령대에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땐 하고 싶은 게 뭐지 물어봐도 '다 좋다, 딱히 없다'고 대답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저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선화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대학진학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어요. 선화가 가고 싶은 대학에 전화해서 기숙사 등록금, 그리고 선화 같이 특수한 학생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진 않는지 알아봐주고 면접 코칭도 했어요. 현재 2개 학교에 지원했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여름방학 캠프에서 선화 어머니가 고향 친척들을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선화는 통일 돼서 북한학생들이 오면 자신은 먼저 와서 살았으니까 그 친구들이 남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다고 해요. 저도 나이가 20대 후반이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될 지 모르지만 선화와 계속 유대감을 갖고 연락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복지시설같은 곳에서 자원봉사도 같이 하자고 선화와 가끔 이야기 했었어요.





김석곤 멘토 (전북도 청년위원장)

선화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화의 어머니가 보호자로 같이 참여 하셨지만 멘토링이 진행될수록 신뢰가 쌓여서 요즘에는 어머니가 참석을 안 하십니다. 선화는 저를 친한 이웃아저씨, '송정아저씨'라고 불러요. 선화가 많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 주로 친밀감을 쌓기 위해 노력했고, 카톡 등 문자를 자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캠프할 때 천연염색, 족욕체험, 탈북 선배와의 만남의 시간, 멘토-멘티 통일이야기 등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함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만났습니다.

올해 대학생 위주로 멘토단을 구성했고, 현재 멘토 50명, 멘티 12명 등 1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들과 비슷한 세대간에 교감을 나누기 좋을 것 같아 2030청년자문위원, 통일동아리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다른 일반 자문위원님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취업지원 등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자문위원은 물론이고, 통일동아리 대학생들까지 자원봉사자로 포함한 '통일전문 멘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화가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나중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어깨동무하기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멘토가 되어줄 계획입니다.

김옥숙 멘토 (자문위원)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보니 강해진 김석곤 멘토가 주로 멘토링을 하고 그 두 명을 뒤에서 돕는 보조역할을 합니다. 선화 어머니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 편하고 자주 만나다보니 이제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한옥마을에서 부채만들기, 비빔밥만들기 체험을 같이 했는데 선화가 좋아하고 잘하더라고요. 탈북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해져야 북한에도 좋은 소문이 들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멘토링을 잘 이끌어 나가면 통일이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 강남구협의회 한현식 멘토

“아이들에게 열정을 심어주는 멘토링,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일선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다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한현식 멘토는 청소년 멘토링 전문가다. 학교 교사들이 멘토가 되어 한 아이만 책임져도 청소년들의 일탈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믿는다. 멘티 김강민(가명) 학생은 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건너와 현재 여명학교에 재학 중이며 서강대, 동국대 등에 합격했다.

한현식 멘토

강민이를 만난 지 10개월여가 되었습니다. 멘토란 친구, 안내자, 부모, 선생님 등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멘토링 기간동안 삼촌, 이모 등의 호칭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멘토-멘티 간 서로 지켜야 할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12월에 멘토 해단식을 하고 강민이가 대학생이 되면, 멘토-멘티 관계가 아니라 삼촌, 아버지와 같은 가족관계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이예요? 진짜 닮았네요”라고 누가 말하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남북한 수업과정이 달라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강민이는 이를 잘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저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과를 권유했지만 강민이는 통일에 관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지난 7월에는 청소년통일모의국무회의의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소 멘티에게 인성교육과 함께 지혜를 익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을 잘해야 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음악회에 가거나 영화도 보고 독서도 하며 이야기를 나눴고요. 철민이는 지난 여름캠프 때 "함께 밥을 먹고, 강의도 듣고, 초콜릿도 만들어보고 멘토선생님과 한방에서 잠을 자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자체가 행복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멘티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에 대해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끝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처음엔 저도 2시간 넘게 약속장소에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멘티에게 약속은 신뢰이자 세상을 사는 재산이고 지혜라고 알려주었더니 미안해 하며 많이 개선됐습니다. 멘토링을 하다보면 멘티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멘토도 많이 성장합니다. 저도 강민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고 탈북청소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글. 기자희>



김강민 멘티 '청소년통일모의국무회의발표대회'대상 수상

"한국사회는 저에게 평안도 주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부족한 학업을 채우기 위해 하루에 120개의 영단어를 외우고 방과후 공부방 등을 이용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성적이 오르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경쟁사회가 맞지만 그보다는 '투자사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한은 능력을 갖추고 노력할 때 균등한 기회가 있고 얼마나 자신에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열망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북한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발표문 中)"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3차 탈북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의사 선생님이 비염이 좀 있다면서, 건강해지려면 채소를 많이 먹고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은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내 눈 시력은 0.7이래, 0.7이면 괜찮대.”
탈러트가 꿈이라는 영신이(가명)와 간호사가 꿈인 진옥이(가명)는 각각 2년, 3년 전 한국에 왔고 현재 6학년이다. 영신이와 진옥이는 오늘 친구들과의 ‘병원나들이’가 마냥 즐겁다.



바로 검진하고 바로 치료하는 3차 무료건강검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단장 :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은 지난 10월 10일 H+양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삼성학교(구로구 구로동 소재) 재학생과 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검진 봉사를 실시하고 구급약상자를 전달했다.

삼성학교 학생들은 이날 엑스레이 촬영 등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마친 뒤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방과, 치과, 안과 등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특히 각 학교에서 진행됐던 1~2차 때와 달리 종합병원에서 실시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진을 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도 참석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철수 의료봉사단장은 “삼성학교를 방문해보니 건강검진을 하기에 환경이 좋지 않아 병원버스를 이용, 저희 병원에서 검사하도록 했다”며 “질병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해서 이 학생들이 병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도록 알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부분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환경이 열악하고 장소도 좁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이라면 앞으로 병원에 직접 데려와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과 정형외과 한방과 치과 안과 등 종합검진 실시

윤영진 자문위원(경희공의보 한의원장)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에게 “정말 안 아파요? 사소한 거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라고 물었고 학생은 “오늘 주사를 맞아서 여기가 아파요”라며 장난스럽게 팔을 내민다. 윤영진 위원은 “감기기운이 빨리 떨어지려면 녹황색 이파리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조언해주었다.

정형외과 진료를 맡은 양지병원 윤형조 과장은 “남한에 와서 잘 먹는다고는 하지만 한국 애들보다는 키가 좀 작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세 번의 진료활동에 모두 참여한 한 원무과 간호사는 “환절기라서 그런지 기침을 많이 해서 시럽을 많이 썼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왜소한 애들이 많아서 영양제를 나눠줬다”고 전했다. 치과 치료를 도운 문경미 간호사는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충치가 많았고, 치아 표면에 플러그들이 많이 묻어있는 걸로 보아 올바른 칫솔질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삼정학교 채경희 교장은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성장발육이 원활치 않아 잔병치레가 많다보니 평소 아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구급약품이 응급상황, 비상상황에서 애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며 기뻐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 주제로 한 작품, 북한주민도 공감할 것 뮤지컬 '꽃신'의 여주인공 강효성

*"우리는 할매가 되자, 금방 죽어 없어져도 그림이랑 노래, 책, 그런 거는 오래 오래 남을 거
아이가. 민들레 홀씨 맨키로 약해보이도 그래도 거기 멀리멀리 날아 안 가겠나.
우리를 오래오래 기억해주소.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 아이오."*

위안부 피해할머니를 주제로 한 뮤지컬 '꽃신'이 충남, 경기, 부산 등 총 3회 공연을 남겨놓고 있다. 뮤지컬 '꽃신'은 제작진과 배우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져 주목받기도 했지만,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이 더욱 돋보이는 작품이다. '울다가, 울다가, 어지러워질만큼 브라보를 외치다'라고 쓴 한 관객의 후기처럼, 일제강점기 말 순박한 시골 처녀 '순옥'이 역사의 비극 속으로 휩쓸려가는 안타까운 여정을 춤과 노래로 안내하는 뮤지컬 '꽃신'의 히로인, 강효성 씨를 만났다.

뮤지컬 배우 강효성 씨는?



한국 뮤지컬계의 '레전드'로 10년 이상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마리아 마리아'의 여주인공 강효성 씨. 이 작품으로 2004년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부터 연출가로 무대를 총 지휘했다. 이 외에도 '하드락 카페', '아가씨와 건달들' 등 다수 뮤지컬에 출연하며 제10회 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제20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2011년 문화예술인대상 등을 수상했다.



❁ 피해 할머니 이야기 듣고 '재능기부' 출연 결심

강효성 씨는 처음 이종서 대표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며 출연제의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가졌다고 한다. 작품 하나를 무대에 올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다 배우오디션 공고를 올렸는데, 재능기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오디션은 무려 3차에 걸쳐서 진행됐고, 1차 오디션이 있던 날, 심사를 맡은 강효성 씨는 그곳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났다.



▲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강효성 씨

“할머니 두 분이 오셔서 같이 심사를 했는데,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어요. 안타깝고, 분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해보자, 내가 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출연하기로 결심했어요.”

예술감독이자 주연배우로서 강효성 씨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대본이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도 여자로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 작품이 거꾸로 그들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은 물론, 말 한마디, 호흡 하나까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대로 포착해내기 위해 수없이 대본을 검토했다.

❁ ‘공연예술’로 승화시킨 할머니들의 삶

뮤지컬 ‘꽃신’은 여주인공 순옥과 윤재의 사랑이야기에 무게중심을 뒀다.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순옥은 윤재와의 혼인을 앞둔 상황에서 동생과 함께 위안부로 끌려가고, 윤재 역시 강제징용을 당한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여동생과 아버지는 죽고, 위안부로서 받은 상처 때문에 순옥은 윤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난다. 엇갈리기만 한 두 사람은 나중에 영혼으로 만나 결국 꽃신을 신게 되지만 ‘순옥’으로 상징되는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짓밟힌 생애, 아픈 삶의 이야기는 관객들의 가슴에 비처럼 흩뿌려진다.

“뮤지컬은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역사적 피해 사실에만 초점을 맞췄으면 작품이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인류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을 테마로 감성을 터치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꽃신 중

▼ 故 김순덕할머니의 작품 ‘꽃신’



캐스팅도 국내 뮤지컬계에서 손꼽히는 배우들로 구성됐다. 순정남 ‘윤재’ 역은 서범석과 경찬우 씨가 번갈아 맡았고 일본군 장교 ‘하루코’ 역은 가수 윤복희 씨, 순옥의 아버지 ‘춘배’ 역은 탤런트 김진태 씨가 연기했다. 윤복희 씨는 강효성 씨가 직접 섭외했다.

“꽃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윤복희 선생님께서 꼭 맡아주셨으면 하는 역할이 있다며 부탁드렸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다고, 흔쾌히 승낙해주셨어요. 공연에 대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어요.”

❁ '인권을 이야기하는 공연'으로 오래 남길

그러나 '꽃신'은 작품성과 주제, 배우들의 호연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초청을 통해 공연을 본 관객들로부터 찬사가 쏟아졌고 지난 6월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창작뮤지컬상과 여우조연상(윤복희)을 수상했지만 티켓 판매, 투자, 협찬 등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쳤다.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은 외국에서 일단 인정을 받고 들어온 작품이다보니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관객들 역시 검증된 작품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게다가 경제적으로 일본과 연계돼 있는 기업들의 경우 아무래도 위안부를 주제로 한 작품의 후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효성 씨는 뮤지컬 '꽃신'이 앞으로 더 다듬어져 오래 남는 공연이 되어줄 것으로 확신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신다섯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 작품은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의 정신적 상처도 보듬는 등 범인류적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말 한마디, 호흡 하나까지 디테일한 점들을 포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작품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 같은 역사를 가진 '북한 배우들과도 공연하고 싶어'

강효성 씨는 지난 8월 중국 관계자들이 작품 '꽃신'을 관람한 뒤 주제에 공감하는 것을 보고, 북한주민들과도 '꽃신'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인터뷰하시는 것도 봤어요. 이 작품을 북한 배우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주제로 예술교류가 활발해지다보면 통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을까요?"



▲ 꽃신 中



강효성 씨는 1985년 남북한 예술단 교류 때 김백봉 씨 등 무용계 인사들, 연예인들과 함께 평양 공연을 다녀왔다. 북한 관객들은 특히 화관무나 농악 등 전통공연에 큰 호응을 보였다고 한다. 공연을 마치고 나온 강효성 씨의 귀에 대고 '너무 잘했다우'라고 속삭였던 한 중년 여성수행원이 헤어질 때 많이 우시던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사실 평양공연 당시 누구보다 마음 졸이며 그녀를 기다린 분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에게 '이북 간다'는 말은 '영영 헤어짐'을 의미했다. 두 분 모두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으로, 이산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 강효성 씨의 할머니는 잠시 남쪽에 내려간 아들을 찾으러 내려왔다가 전쟁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어머니는 5남2녀의 형제 중 네 명이 북한에 남으셨다고 한다.

"가끔 '아이고, 이젠 다 돌아가셨겠지'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갑자기 터진 전쟁 때문에 남편, 자식과 헤어져서 평생을 못보고 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이젠 그 아픔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워요."

❁ '통일'되면 그 어느 것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강효성 씨는 이 작은 나라가 반이 갈리고, 그 주위에 강국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일만 된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기질이 그래요. 남북이 하나가 되면 일본이든 중국, 러시아든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도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통일로 인해 미래에 더 할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통일 이야기가 결코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 뮤지컬 꽃신 단체사진

그녀는 현재 공연 '마리아 마리아' 투어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말까지 여섯 개 지역에 공연이 예정돼 있기 때문. 중간 중간 뮤지컬 '꽃신' 공연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끝으로 그녀는 "꽃신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피해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 그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지난 23년간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해외에서도 '위안부 기림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는 등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에서, 뮤지컬 '꽃신'이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뮤지컬 '꽃신' 향후 공연 일정



- 2014년 11월 22일(토)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
 - 2014년 12월 27일(토) 경기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 2015년 3월6일(금)~8일(일) 부산 시민회관 대공연장
- ※ 문의 : 070-4809-0959





영화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영화 'Steh Auf' 감독 정승현

독일 아헨(Aachen)에서 태어나고 자란 당시 15세 한인교포 소년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동독에서 차와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고, 서독인들은 손을 흔들거나 울고 얼싸안으며 서로를 반겼다. 마치 '농담'처럼 믿겨지지 않았던 이 장면은 오래도록 그의 기억속에 남아있었다. 24년 뒤, 잠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는 이산가족 상봉장면을 TV에서 보고,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다. 가까머리 소년이던 형제가 60~70년 만에 백발이 되어 재회하는 모습에서 격한 감동이 밀려왔다. 실향민이자 이산가족의 한을 품은 채, 1년 전 작고하신 할아버지의 삶이 갑자기 그의 안으로 들어왔다.



단편영화 'Steh Auf'로 주목받은 김나지움 교사

정승현 감독을 처음 본 건 문화예술인들에게 후원인을 찾아주는 소셜펀딩 플랫폼 '펀딩21'에서였다. '펀딩21'의 소개 영상에서, 그는 이산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 '가족'을 촬영하게 된 이유를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 전에 정승현 감독은 단편영화 '일어나(Steh Auf!)'의 감독으로 국내외에 얼굴을 알렸다. 이 영화는 한국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됐으며, 독일, 터키, 미국,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의 영화제 본선에 오르거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독일교포 2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이 영화에서 그는 작가와 감독, 배우 등 1인 3역을 맡았다.



정승현 감독의 직업은 교사다. 쾰른대학을 졸업한 뒤 독일 레어암트 과정 및 국가시험을 통해 공무원자격을 지닌 교사가 됐고, 뒤셀도르프의 김나지움에 재직중이다. 교사가 되기 전 1999년 한국에 들어와 2년간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에 다녔으며, '고양이를 부탁해', '닌자 어쌔신',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2년간 독일 직장을 휴직하고 국내 한 국제고등학교에서 체육, 종교, 라틴어 등을 가르치면서, 단편영화 '가족'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1월에 있을 그의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 마침 가족들 모두 한국에 와 있어, 정승현 감독, 아버지 정부남 씨

(파독 광부)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상봉' 못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가족' 영화 기획

정승현 감독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보면서, 2년 전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다고 한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나눈 긴 대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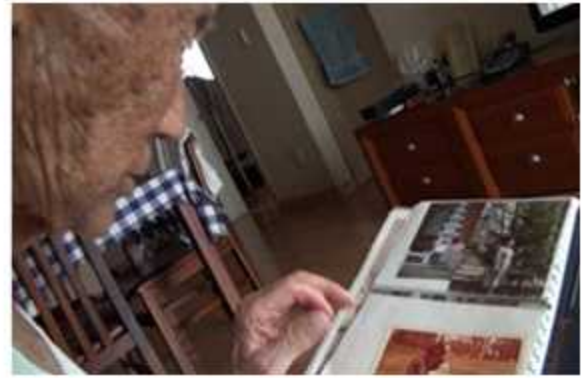
"할아버지 가족도 이북에 계시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상봉 행사에 초청됐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재회 직전 마지막 며칠을 어떤 기분으로 보내셨을까? 헤어진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그 가방 안에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영화에 담고 싶었어요. 외국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잘 모르거든요. 영화로 만든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편딩21에서 볼 수 있었던 소개 영상은 당시 할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냥 녹화해둔 필름이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끝내 이북의 가족들과 재회하지 못하고 2년 전 96세에 돌아가셨다.

정승현 감독의 할아버지는 지금 세상에 안계시지만, 영화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족을 기다린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기운 없이 지내시다가 어릴 적 감자밭에서 헤어진 형과 상봉할 수 있다는 편지를 받은 뒤부터, 생활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기대에 부풀어 상봉을 기다리는 동안,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들과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북의 가족에게 줄 선물도 준비한다. 꿈만 같던 상봉 당일... 스토리 전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 감독은 새드 엔딩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다.



영화를 위해 정승현 감독은 지난 2월, 속초에 가서 가족을 상봉하는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현장분 위기도 취재했다. 시나리오 는 어느 정도 완성됐고, 11월부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펀딩21의 목표 금액은 채우지 못했지만, 회사나 단체, 개인적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어요. 영화가 완성되면 ‘일어나(Steh Auf!)’처럼 여러 외국영화제 등에 출품해보려고 해요.”



“통일 이루려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승현 감독과 그의 아버지 정부남 씨가 기억하는 독일의 통일 이야기도 들었다. 정부남 씨는 “당시 서독은 돈도 많고 경제가 발전해 있었으니까, 억눌려있던 동독 주민들이 통일되자마자 그냥 막 물밀듯이 왔다”며 “독일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했다. ‘한국도 독일처럼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이북 주민들은 남한의 경제가 발전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3대 동안 그렇게 군인들이 꼭 잡고 있으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4살 때 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남한으로 피란을 왔다.

정승현 감독은 15년 동안 독일이 분단된 나라라고 알고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통일이 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나중에 대학에서 동독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이 동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듣고 난 뒤에야 비로소 통일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서는 비슷하지만,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았으니까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편견 같은 것도 남아있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북한이탈주민)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겉모습은 남한 사람들과 비슷하데 말투 등은 차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아버지 정부남 씨는 요즘 남한의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북한에 대해 관심도 없으며, 완전히 딴 나라처럼 얘기하는 것이 속상하단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점차 없어지니까 마음도 안 좋아요. 통일이 되려면 어느 정도 희생과 지식,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문화 VS 독일문화 이렇게 달라요

1년 뒤, 정승현 감독은 다시 독일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1999년부터 2년여간, 그리고 지난 1년간 한국에서 머물며 경험한 한국사람, 한국문화에 대한 느낌을 물어봤다.

“첨엔 학생 때 왔으니까 밤늦게 놀 수 있고 먹거리도 많아서 좋았어요. 독일 가게는 대부분 문을 일찍 닫거든요. 그런데 좀 복잡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같은 서울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한 시간 이상 가야하는 데다, 전철 안도 뻑뻑하고… 아주머니들이 지하철문만 열리면 막 달려서 재빨리 빈자리에 앉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다만 번데기와 산낙지도 먹는 식습관에는 ‘기겁(?)’을 했고, 지금은 거의 없지만 당시 택시 승차거부와 합승, 바가지 등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달리 ‘정감’ 같은 게 ‘물씬’ 느껴진다고 했다.

“정서적으로 독일은 딱 자르는 게 있어요. 좋게 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좀 이기적이고 냉정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한국친구들은 잘 챙겨주고 다정다감해요.”

아버지 정부남 씨는 거꾸로 한국인이 느끼는 독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독일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집을 갔는데 맥주 한 잔, 생수 한 통도 각자 먹은 만큼 계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정은 좀 없지만 각자 내니까 ‘부담은 없어 좋더라’며 웃었다.



정승현 감독은 전작 ‘일어나(Steh Auf!)’에서 보여준 것처럼 태어난 곳도, 자라난 곳도 독일이지만 간혹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교포2세들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다. 이런 혼란이 올 때 자신을 받쳐주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포2세로서 자신의 뿌리인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의 두 번째 단편영화 ‘가족’이 하루빨리 완성돼, 남북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해외에 두루 알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 서울 가톨릭영화제에서 10월 30일과 11월 2일에 그의 영화 ‘Steh Auf’가 상영될 예정이다.

〈글/사진. 기자희〉



10대 탈북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궁금하세요?

민주평통의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 중 하나인 '어깨동무하기 멘토링'이 시작된 지 6개월여가 지났다. 초중고생인 멘티(탈북청소년)가 뛰어난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거나, 멘토(자문위원)에게 아직도 거리감을 갖는다면, 북한과 남한에서 10대들이 향유하는 놀이문화 이야기로 대화의 장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

친구들과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즐겨요

A학생은 2007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제3국에 체류하지 않고 '직행'으로 남한에 왔다. 하나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았는데, 그 때 알게 된 게임이 '꾸러기○○(유아용 온라인 학습게임)'였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원에서 나온 뒤 일반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PC방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제가 꾸러기○○를 하니깐 애들이 막 놀려요. 유치하게 이런 거 한다고요.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아 이런 게임은 유치한 거구나'라고 알게 됐죠." 그래서 A학생은 그날부로 '던전앤파이터'와 같은 온라인 액션 게임을 열심히 익혔다고 한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북한에도 PC방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제 기억에 시간당 5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특이하게도 북한에서는 뒤에 서서 게임하는 걸 보기만 해도 돈을 내야 해요. 그때 아이스크림이 10원, 농마국수가 30원이었는데 구경비용으로 10원정도 냈던 것 같아요. 북한PC방은 여기처럼 라면이나 과자를 팔진 않았어요. 나중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PC방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때문인지는 몰라도 PC방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아이스크림 이야기가 나왔기에 북한에서는 정말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고 부르는지 물었더니 그런 말은 안 쓰고 '까까오'나 '아이스끼끼'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남한에서 겪은 '깡통물' 이야기도 들려줬다.

“어느 날 캔 음료수가 먹고 싶어 슈퍼에 갔는데, 뭘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고민하다가 강통물을 달라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캔을 강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슈퍼에 갈 때마다 주인아저씨가 ‘강통물줄까?’하고 놀려대시더라고요.”

슈퍼아저씨는 ‘강통물’을 달라고 했던 그 학생이 꽤 귀여웠던 모양이다.

남한에서 즐기는 ‘추억의’ 북한 놀이

북한에서 여자아이들은 대개 공놀이, 줄넘기, 공기, 오자미놀이 등을 하면서 놀고 남자아이들은 딱지치기나, 못치기, 강통돌리기 등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 놀이가 1980년대 중반, 남한의 농촌 놀이문화와 비슷하다.

‘여기랑 좀 다르잖아요, 북한에서는 딱지를 이렇게 종이로 만들거든요’라고 말하면서 보여준 딱지 접는 방법도 남한과 똑같고, ‘이렇게 돌려요’하면서 보여준 강통돌리기 놀이도 같았으며, 돌이나 천, 살구씨 등으로 한다는 공기놀이도 똑같다. 다만 ‘못치기’는 좀 생소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못이 귀하던 1980년대 초까지 전국(남한)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던 놀이’라고 돼 있다. 바닥에 선을 긋고 여러 사람이 서서 못을 던져서 라인 밖으로 못을 쳐내는 놀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못치기로 못을 따면 시장에 팔 수 있어요. 상태가 좋은 것은 비싸게 팔고 안 좋은 것은 싸게 팔고요. 잘하는 애들은 한방에 쳐서 따기도 하는데, 잘못 맞으면 날아오는 못에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납(연) 따먹기 놀이도 있단다. 북한에서는 납을 ‘연’이라고 부르는데, 흙물 흐물한 연을 녹여서 모양틀에 넣은 뒤에 굳혀서 갖고 있거나 팔기도 한다고. 추운 겨울에는 얼음 위에서 ‘외발기’를 탄 기억도 난다고 했다. 외발기란 날이 하나인 썰매인데 발을 두 개 집어넣고 강가 얼음 사이를 타넘으며 놀곤 했다고 한다.



그래도, 북한아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놀이는 TV애니메이션보기인 것 같다.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가도 ‘소년장수’를 할 시간만 되면 TV가 있는 집에 모여 만화영화에 푹 빠져들었다고 했다. 다섯 시부터 20분가량 TV에서 맹활약하는 ‘소년장수’의 주인공 쇠메는 그 어떤 연예인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인기를 자랑했다고 한다.

대학? 어딜가든 결론은 잘사는 게 꿈이죠

남한에서 7년여를 지내고 어느덧 고3 수험생이 된 A학생. 교사가 되기 위해 지방에 있는 교육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A학생의 학교에서는 물리치료나 간호, 교육대학과 같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업선택에 무리가 없는 학과를 선호하는 것 같았다.

“남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사실 본인이 바라는 대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꿈은 있어도 이루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늘 결론은 같아요.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A학생에게 그동안 멘토링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어땠는지 물었다.

“학교 특성상 멘토링을 받는 애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멘토선생님에게 연락을 잘 안 해요. 애들 성향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먼저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을 바란다고 나무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옷이나 가방, 신발 같은 걸 사주시면 좋긴 해요.

그러나 훈계를 하거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싫다고 했다. 차라리 힘들지 않는지 물어보고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등이라도 두드려주는 게 좋다고 했다.

A군은 ‘또래’와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남한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교회에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친구 두 명을 알게 되고, 같이 놀거나 공부하면서 친해졌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 학교 내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릴 수 있었다며, 일부러 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 가까워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글. 기자회견>



북한 인권문제 해결이 통일의 밑거름 될 것 민주평통 2014 한·독 평화통일포럼 개최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맞아, 독일통일과 동·서독 통합정책을 돌아보고 한반도 통일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2014 한·독 평화통일포럼'이 10월 15일(수) 독일 베를린 독일 연방의회 기민·기사당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동·서독 통합정책에서 본 남북통일의 해법은?'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독 양국의 전문가 18명이 '서독 정부의 통일기반 구축 정책과 시사점', '서독의 對동독 인권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열린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행사에는 현지 자문위원, 동포대표, 유학생, 독일측 학계 및 정관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독일통일은 인권의 승리, 남북통일은 인권통일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독일통일은 인권의 승리, 남북통일은 인권통일'이란 주제의 기초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이 한반도 통일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동독 민주혁명 그 기반에는 인권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고, 서독의 동독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와 지원이 독일통일의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이 독일통일의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경대 수석부회장 ▶



▲ 노르베르트 램머트

노르베르트 램머트 독일연방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에 규범화된 솔루션은 없으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속출할 것이기 때문에 열린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의 변화는 유럽의 변화 안에서 상호간의 영향으로 가능했다”며 국제정세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르트무트 코식 독-한의원친선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북한 동포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치, 사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호흡이 짧고 확신이 없으면 통일과 같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통일을 준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 하르트무트 코식

한편 미하엘 가이어 前주한 독일대사는 ‘6자 회담-이제 다시 북경으로’라는 기조 연설에서 북한의 핵문제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6자회담 관련국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이 외부세력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6자회담에서 신뢰할 만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해 핵무기 대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1세션 : 서독정부의 통일기반 구축 정책과 시사점

1세션은 '서독정부의 통일기반 구축정책과 시사점'이란 주제 하에 이달곤 前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회로 올리히 블룸 할레-비텐베르크대 교수와 양창석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의 발제, 에두아르트 린트너 前독일연방 내무부 차관과 정중재 충북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올리히 블룸 교수는 "통일정책은 준비단계, 현 상황 파악단계, 실행단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인 과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과정으로 △통일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 △좋은 통일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 △정책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정책행동을 상호 연계적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제시했다.



양창석 감사는 서독 정부의 통일기반 구축정책의 핵심은 △서독 정부의 서구 중시 정책과 미국의 강력한 지지 △원칙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교류협력 정책 추진 △동독과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 유지 △민족자결권 원칙의 고수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을 추진하고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국제적 친분과 신뢰구축을 위한 통일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한반도의 '유일대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두아르트 린트너 前차관은 독일통일 25년간 주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뒤 "동독의 각 마을과 도시의 인프라는 매우 개선됐고, 서독의 체감 생활수준이 낮아지지도 않았으며, 현재 역대 최고의 세수와 수출 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고 독일통일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중재 충북대 교수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돌아볼 때 한국 국민들의 통일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며, 중국 등 주변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 : 서독의 對동독 인권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함의

2세션은 '서독의 對동독 인권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하에 박성조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서병철 前통일연구원장, 안나 카민스키 독일연방 구 동독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사무총장의 발제와 최보선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칼 브렌케 독일경제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병철 전 원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적할 때는 서독과 같이 인권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생활향상을 위한 세심한 전략을 수립,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북한주민의 대남 인식개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인권개선 조치에 상응하는 과감한 반대급부 제공 등을 제안했다.



칼 브렌케 독일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인권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행사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써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을 제시했다. 즉 동서독 간에는 분단상황에서도 물품을 비롯한 여론, 정치적 견해, 문화, 자금 등의 유무형의 교류를 지속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동독의 인권이 악화되는 것을 견제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독일의 통일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인권정책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우리의 통일준비에 많은 시사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세대 통일 꿈나무들이 펼치는 지식의 향연” 충북지역회의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열띤 대회 현장 속으로

지난 10월 14일(화) 오후, 충북체육관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4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충북지역회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중학생 아이들이 대회 시작을 기다리며 재잘거리고 있었다.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대한민국 중학생들의 활약이 무척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충북지역회의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에는 총 14개 학교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한상길 충북부의장과 김진식 충청북도 정무특별 보좌관, 이명식 청주시협의회장, 박군상 옥천군협의회 회장과 자문위원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을 응원했다. 퀴즈대회 문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북한 상식문제와 흥미진진한 역사-통일 퀴즈 위주로 출제됐으며, 재미있는 역사 빙고게임과 비보이의 공연 등도 진행돼 참가 학생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통일 문제 고민, 함께라서 행복해요”

한상길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나라의 미래경쟁력은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자라나는 꿈나무인 학생들이 얼마만큼 그 나라의 역사관과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로 가늠해볼 수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충북의 대표로 뽑힌 학생들은 반드시 전국대회 퀴즈왕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를 널리 알리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빨강 초록, 두 팀으로 치러진 예선전

'2014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은 개그맨 이상화 씨의 사회와 오하진 아나운서의 문제출제로 진행됐다. 예선전에는 빨강과 초록 두 팀으로 각각 200명씩 나눈 후 OX 문제를 통해 각 70명씩 선발했다. 대회 시작에 앞서 긴장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비보이 댄스그룹 '빅버스트'의 축하공연이 시작됐다. 빅버스트는 현란한 안무와 화려한 비보잉 실력을 자랑하며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난도 동작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본격적으로 빨강 팀의 예선이 시작되고 첫 번째 문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련된 문제를 한상길 부의장이 직접 문제를 냈고, 모두가 만점이라고 생각했지만 10명이 탈락했다. 예선전은 시작부터 치열했다. 70명의 인원을 가리지 못해 2차 패자 부활전까지 가기도 했다. 이어진 초록팀은 초반에는 선전하다가 드더국(수제비)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 대거 탈락하기도 했다.



통일 키워드로 역사 빙고 즐겨요

본선이 시작되기 전 잠시 대회 열기를 가라앉히고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역사 빙고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전광판에 비치된 총 40개의 역사, 통일 관련 단어 중 16개를 빙고 란에 적고 게임 시작을 기다렸다. 하나둘 사회자가 뽑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밖에 학생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마음껏 끼와 재능을 발산하기도 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최종 우승문제, '예성이는 알고 있었을까?'

2차 패자부활전 끝에 살아남은 140여 명이 본격적으로 본선 경합을 치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영화 '코리아'에 대한 문제로 '세계 OO 선수권대회'의 공란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는 문제였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 질문, 남북한의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하는 국어사전인 '겨레말큰사전' 명칭을 쓰는 문제 등이 잇달아 출제됐다. 정답 확인 전에 답을 지워 탈락한 학생, 맞춤법이 틀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고, '평화의 댐'을 묻는 질문에 '대천댐'이라고 쓴 학생,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이수만'이라고 쓴 학생의 오답에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오랜 시간 팽팽한 승부가 계속되다가 마침내 원평중학교 임예성 학생, 일신여자중학교 이정운 학생이 최후의 2인으로 남게 됐다. 순간 응원 열기는 더욱 거세졌다. 그러나 승부는 다음 문제에서 너무나 쉽게 갈리고 말았다. 박정희 대통령 관련 문제에서 이정운 학생은 '문제의 답을 잘 모른다'고 말한 반면, 임예성 학생은 '100퍼센트 답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오하진 아나운서가 정답을 발표하자 원평중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축하의 박수와 함성을 보냈고 마침내 예성이는 충북지역 퀴즈왕에 등극했다.

<글 / 사진. 나병필>

“아이들 퀴즈왕 통해 통일이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할 것”

음성중학교 사회담당 주현미 선생님

Q.역사·통일 퀴즈왕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런 큰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 싶었어요. 교과 단원에 통일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교과서적인 지식만 익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퀴즈대회를 준비하면서 교과서속 내용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통일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따로 준비한 것은 없어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공부해야 하나 궁금해할 때, 예상문제를 훑어보고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가르쳐 주는 정도였어요.



Q.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통일'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런 행사를 치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보니 '통일'이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통일은 그 누가 아닌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고 느끼는 거지요. 지금은 재미로 퀴즈대회를 즐기고 있긴 하지만 잠재적 교육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수상 학생들이 모두 축하해요!

[수상자 명단]

- <통일상 민주평통 사무처장상> : 임예성(원평중학교)
- <평화상 충북도지사상> : 경규화(청주중학교), 서용호·김병현(옥천중학교), 나승환(대성중학교), 이정운(일신여자중학교)
- <민주상 충북교육감상> : 왕정연(청주여자중학교), 전예지·이하늘(일신여자중학교), 김채현(송절중학교), 김용호(옥천중학교)
- <특별상 본선최다 진출학교> : 충북여자중학교 김윤근 선생님
- <특별상 최다입상 학생 배출학교> : 옥천중학교 김아련 선생님

[수상소감] 통일상 수상한 임예성 학생

상금으로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 쓸 거예요. 5천 원만요. (웃음) 우승하게 돼 너무 좋아요. 앞으로 전국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막상 대회에 참가하고 보니 통일의 필요성을 더 잘 알게 됐어요.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통일준비 위해 남북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민주평통 한국행정학회 공동 '서울평화통일포럼' 개최

“독일은 통일이전인 1985년부터 양독 도시간 자매결연을 시작했고 통일과정에서는 2,000여개의 도시가 참여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한국의 지방발전 경험이 북한의 균형적 지방발전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남북간 소득격차를 좁혀 통일과정에서의 국민통합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주최한 '2014 서울평화통일 포럼'이 '통일과정에서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9월 3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통일문제 전문가와 지방행정 전문가 16명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서울 각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포럼회원과 일반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범국가적 통일준비를 위한 지자체 역할 본격 논의

이날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제는 언제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통일과정에서 남북 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 역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정부 차원의 통일 기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범국가적 통일준비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들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 박찬봉 사무처장



▲ 이중근 서울부시장



▲ 이해영 한국행정학회 회장

박찬봉 사무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기본적으로 통일준비는 중앙정부가 주된 책임과 역할을 맡고, 실행단계에서는 남북 합의의 큰 틀 안에서 지방정부가 같이 보조를 맞춰가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과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통일 단계에서는 남북 주민간 통합과 북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차원의 협력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근 서울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포럼에서 민주평통의 지역 통일 활동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 달라”며 “북한이탈주민과의 통일준비를 함께 해나간다면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지경토론 신청자가 너무 많아 커팅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통일 이후 한국 행정체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금창호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는 민간의 비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정치적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시작해야 하며, 실제 북한이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신뢰구축이 이행되면 상호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남북간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자체간 교류 필요

신기현 전북대 교수 = 남북한은 지방정부 운영체계가 다르고 운영 주체에 차이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불가피하다. 통일부와 자치단체장협의체가 협력해 공동의사결정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신기현 교수



▲ 신윤창 교수



▲ 육동일 교수

신윤창 강원대 교수 = 남한의 광역단체는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교류협력은 자율성이 없고, 대남사업부서가 나서기 때문에 대화창구를 개설하기가 어렵다. 남북한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매칭기준은 그동안 진행될 지자체 교류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 = 남북지방간교류협력은 국제적, 국가적 정치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협력교류 매커니즘 구축해야 한다. 또한 남북은 매우 이질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일 후 실시할 수 있는 남북간 지방행정표준모델이 있어야 한다.

권경득 선문대교수 = 북한과 교류하더라도 결국 영향을 받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관계 변화다. 교류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접근해달라. 가장 큰 남북문제는 역사성회복이며, 또한 환경, 사회문화와 같은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



▲ 권경득 교수



▲ 조경근 교수



▲ 황인수 실장

이준한 인천대 교수 = 남북한 광역시도를 매칭하기 전에 남북한 정부의 의지, 법제도 등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준비차원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다. 또 매칭을 할 때는 과거 교류를 해온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경근 경성대 교수 = 대통령께서도 작은 통로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런 노력 중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DMZ 세계평화공원인 것 같다. DMZ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 싶다.

황인수 한국밀레니엄연구원 실장 = 남북도시간 매칭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접성, 이익이 보장되는 상호 보완성, 이윤창출의 수익모델 등이다. 파일럿케이스로 2~3군데만 먼저 시작하고, 일방적 지원체계가 아니라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류를 북한에 제시해서 해야 한다.

현경대 수석부의를장 '재일 학도의용군 충혼비 제막식' 참석



현경대 수석부의를장은 10월 3일(금) 도쿄 미나토(港)구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한국중앙회관 앞에서 열린 재일 학도의용군 충혼비 제막식에 참석해 재일학도의용군의 정신을 되새겼다.

재일학도의용군 위령충혼비는 인천상륙작전과 서부·중부 전선에서 전사한 52명과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83명 등 135명의 전사 재일학도병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북한 지역 전사자를 포함한 전원에 대한 충혼비를 일본에 세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막식에는 박세환 재향군인회장과 유홍수 주일본대사, 생존 재일학도의용군과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현경대 수석부의를장은 기념사를 통해 "재일학도 의용군의 헌신과 애국심이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선진민주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근간이 됐다"며 "재일 학도의용군의 위대한 희생을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통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참전한 642명의 재일학도의용군은 세계 전쟁사상 재외국민이 조국전쟁에 참전한 최초의 사례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에 편입돼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으며, 중공군 참전 후 '3.1 독립보병대대'를 창설해 압록강과 두만강 전투, 원산철수작전에 참여했다. 종전 후 507명의 생존자가 일본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학도의용군들의 일본 국적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입국을 거부해 가족들과 생이별해야만 했다.

다만 미군부대에 배속한 265명은 순환배치 등의 방식으로 일본으로 돌아갔다. 현재 생존해 있는 재일학도의용군은 총 37명이다. 한편, 민주평통은 지난 6월 23~25일 '보훈의 달'을 맞아 생존해계신 학도의용군 18명을 초청해 다양한 보훈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 후쿠오카에서 '통일대박' 강연



현경대수석부의장은 제막식에 참석한 후 10월 4일(토)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서부지역 통일강연회에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넘어 세계의 대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와 후쿠오카, 야마구치, 기타규슈, 오이타, 나가사키, 구마모토 등 일본 규슈지역 및 서부지역 자문위원과 동포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강연에서 "한반도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재일동포 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남북 분단은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경제권의 허리가 끊어진 것"이라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유라시아 그리고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통일은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을 소개하면서, 북한인권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대구지역회의 '남부지역 시·도 교류 합동회의' 개최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는 지난 10월 24(금)~25(토) 1박 2일간 호텔인터볼
고에서 '남부지역 시·도 교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간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구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열린 이번 행사에는 남부권 9개 시도 부의장 및 협의회장과 대행기관장 및 국회의원,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통일대박, 인권통일 민주평통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통일관련 동영상 시청, 시도별 우수사례발표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서울 강남구협의회 'DMZ 평화통일대장정 완주기념식' 열어



서울 강남구협의회는 10월 7일 임진각 누리공원에서 'DMZ 평화통일대장정 완주기념식'을 개최했다. 강남구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평화공원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각 지회별로 전방 DMZ 사단을 방문해 위문품과 금일봉을 전달하는 평화통일대장정을 진행해왔다. 이번 'DMZ 평화통일대장정 완주기념식'에는 환경대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대행기관장, 국회의원, 자문위원 및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완주보고와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서울 은평구협의회 '사랑의 릴레이 연탄나누기' 봉사

서울 은평구협의회는 10월 28일 은평구 수색동 일대에서 주한미군과 함께 '사랑의 릴레이 연탄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봉사에 참가한 자문위원과 평화통일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는 지난 10월 24(금)~25(토) 1박 2일간 호텔인터볼고에서 '남부지역 시도 교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간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구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열린 이번 행사에는 남부권 9개 시도 부의장 및 협의회장과 대행기관장 및 국회의원,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대 수석부회장은 이날 '통일대박, 인권통일 민주평통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통일관련 동영상 시청, 시도별 우수사례발표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서울 강남구협의회 'DMZ 평화통일대장정 완주기념식' 열어



서울 강남구협의회는 10월 7일 임진각 누리공원에서 'DMZ 평화통일대장정 완주기념식'을 개최했다. 강남구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평화공원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각 지회별로 전방 DMZ 사단을 방문해 위문품과 금일봉을 전달하는 평화통일대장정을 진행해왔다. 이번 'DMZ 평화통일대장정 완주기념식'에는 환경대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대행기관장, 국회의원, 자문위원 및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완주보고와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서울 은평구협의회 '사랑의 릴레이 연탄나누기' 봉사

서울 은평구협의회는 10월 28일 은평구 수색동 일대에서 주한미군과 함께 '사랑의 릴레이 연탄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봉사에 참가한 자문위원과 평화통일



한편, 경남 창원군협의회는 9월 16일 창원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2014 평화통일강연회'를 개최했으며, 경남 거창군협의회는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의 이해'라는 주제로 통일교육을, 강원 영월군협의회는 10월 16일 여성회관에서 통일강연회를 각각 실시했다. 그밖에 전남 무안군협의회는 10월 15일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무안군자문위원, 여성사회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여성 통일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 전남 무안군협의회



▲ 경북 청도군협의회



▲ 전남 해남군협의회

경북 청도군협의회는 9월 26일 청도노인 복지회관2층 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으며, 전남 해남군협의회는 9월 24일 인천남동구청(은행나무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함동 통일강연회'를 열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충북 지역회의는 9월 26일 오박사농원에서 여성위원장과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여성위원이 함께하는 한국음식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 서울 양천구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 충북 지역회의

서울 양천구협의회는 10월 1일 연미항마을에서 관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주부 등과 함께 농촌 체험을 실시했으며, 경남 진주시협의회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개천예술제, 드라마 페스티벌, 진주유등축제기간에 어깨동무하기 멘토 자문위원들과 멘티 학생들이 참가해 유등 만들기 체험을 했다.



▲ 광주 서구협의회



▲ 경기 고양시협의회



▲ 경남 고성군협의회

광주 서구협의회는 10월 9일 북한이탈주민과 여성자문위원, 광주서부경찰서 신변보호관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역사 아카데미'를 개최했으며, 경기 고양시협의회는 11일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에서 관내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경남 고성군협의회는 7~10일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 견학을 개최했다.

미래통일세대 육성



▲ 경남 통영시협의회



▲ 경북 김천시협의회

경남 통영시협의회는 9월 26일 총렬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으며 경북 김천시협의회는 9월 27일 김천부곡초등학교에서 '3대 가족 통일 골든벨'을 열었다.

경남 지역회의와 제주지역회의는 10월 2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특별세미나실에서 부의장, 지역회의임원, 경남 및 제주지역 청년위원장 및 임원, 대학생들과 함께 '경남·제주지역 대통일문제

▼ 대전 지역회의



▼ 경남 지역회의와 제주지역회의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대전 지역회의는 5일 대전 기독교봉사회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통일토론회'를 열었다.



▲ 충남 계룡시협의회



▲ 대구 북구협의회



▲ 경기 양주시협의회

충남 계룡시협의회는 10월 8일 용남고등학교 강당에서 용남교 학생 및 예비역장교와 민주평통차문위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및 통일동아리발대식'을 개최했으며, 9일 대구 북구협의회는 칠곡중학교 강당에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자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통일한마당'을, 경기 양주시협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인솔교사, 학부모, 자문위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2014 청소년 통일백일장 글짓기 대회'를 각각 열었다.



▲ 경북 의성군협의회



▲ 충남 홍성군협의회



▲ 경남 함양군협의회

경북 의성군협의회는 13일 의성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자문위원, 의성공업고등학교재학생 및 교직원 등과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진행했으며 충남 홍성군협의회는 10월 14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를 실시했다. 경남 함양군협의회는 16일 함양중학교 체육관에서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육'을 개최했다.



▲ 충남 예산군협의회



▲ 충남 보령시협의회



▲ 경기 화성시협의회

청소년 안보 견학으로는 9월 30일 충남 예산군협의회가 고덕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을, 충남 보령시협의회가 10월 8일 중학생, 인솔교사,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자 등과 함께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으며 경기 화성시협의회는 10월 10일 파주DMZ일대에서 청소년 통일기행을 다녀왔다.





▲ 충북 충주시협의회



▲ 경남 남해군협의회



▲ 경기 이천시협의회



충북 충주시협의회는 같은날 국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경남 남해군협의회는 16일 대전현충원에서 '중학생 나라사랑 체험행사'를 열었다. 또한 경기 이천시협의회는 17일 다산고 학생들과 함께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지역 봉사활동



▲ 충북 영동군협의회



▲ 경북 봉화군협의회

충북 영동군협의회는 9월 29일 영동읍 중앙소공원에서 '2014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모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경북 봉화군협의회는 10월 2일 봉화군노인복지관에서 '2014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부산 서구협의회



▲ 제주 제주시협의회

부산 서구협의회는 14일 덕밭골 행복마을 그린테마공원에서 여성자문위원들과 함께 점심나눔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제주 제주시협의회는 18일 장애우들을 위한 성심원 사랑의 집을 방문해 올해 네 번째 행복나눔 봉사활동 펼쳤다.

현장 견학

▼ 경기 구리시협의회





▲ 부산 강서구협의회

▲ 대구 달성군협의회



▲ 경기 용인시협의회 / ▼ 경기 하남시협의회

경기 구리시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백두산 안보견학을 실시했으며, 부산 강서구협의회는 9월 28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양구군 통일현장에서 '2014 통일테마기행'을 실시했다. 대구 달성군협의회는 9월 29일 자문위원, 무지개회원과 함께 전주 낙수정 군경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경기 용인시협의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안보현장 견학 평화시찰을 4회 실시했다. 경기 하남시협의회는 10월 17일 강원도 양구 DMZ일원에서 통일시대 시민교실에 참여한 시민대상으로 '하남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현장견학'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 대구 달서구협의회



▲ 강원 홍천군협의회



▲ 경기 포천시협의회



▲ 충북 진천군협의회

강원 홍천군협의회는 9월 27일 북방공설운동장에서 대행기관장과 강원부지사, 국회의원,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며, 대구 달서구협의회는 9월 28일 호림강나루공원에서 '2014 달서웃는얼굴마라톤대회'를 열었다. 경기 포천시협의회는 10월 3일 포천시민의날을 맞아 종합운동장에서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포천시민들과 함께 '통일영원을 담은 북한음식' 나누기 행사를 열었으며 충북 진천군협의회는 5일 진천 백곡천둔치 특설무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제7회 통일기원한마당행사'를 개최했다.



▲ 강원지역회의와 제주 지역회의



▲ 대구 중구협의회와 전남 목포시협의회

강원지역회의와 제주 지역회의는 10월 6~7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강원과 제주 여성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강원-제주지역 여성 합동 통일캠프'를 개최했으며 대구 중구협의회와 전남 목포시협의회는 10월 6~7일 대구노보텔 삼폐인홀에서 '2014 민주평통 대구중구-목포시협의회 자매결연 합동회의'를 열었다.



▲ 전남 강진군협의회



▲ 부산 사하구협의회

전남 강진군협의회는 7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강진지역 고령 주민·이북5도민·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평양예술단 초청 효도한마당을 열었으며, 부산 사하구협의회는 9일 을숙도 문화회관 광장에서 사하구민,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평화통일기원 을숙도 생태길 걷기 여행' 행사를 실시했다.



▲ 서울 중랑구협의회



▲ 전남 화순군협의회



▲ 강원 원주시협의회

서울 중랑구협의회는 9일 구립망우잔디운동장에서 '제4회 경평축구 및 통일대박 가족한마당 잔치'를 개최했으며, 전남 화순군협의회는 15일 경남 합천에서 합천·화순군협의회 자문위원 등과 함께 '평화통일기원 합동연수'를 열었다. 이와 함께 강원 원주시협의회는 10월 18~19일 '자문위원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베트남협의회는 9월 27일 여성사회봉사부와 주최로 '효 알리기 및 나라사랑 그리기' 행사를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베가족 2세들에게 '효'와 한국의 '예'를 가르치고, 부모와 함께 나라사랑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캐나다 토론토 협의회는 10월 4일 한인회관에서 얼티비와 공동 주최로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퀴즈게임과 스마트폰 영화제, 청소년 공연 등으로 이뤄진 이번 축제는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만들어 내는 행사로 치러졌다.



가을이 내려앉은 바다와 섬
습지와 갈대 그리고 한 줌의 햇살
경기도 대부도, 안산갈대습지공원

저 만치 밀려나 있던 또 한 계절이 서성이면 멀리 여행을 떠났던 새들이 돌아온다. 고단했던 여정, 지친 날개를 접고 하나 둘, 동지를 틀자 때마침 지평선 너머 바람도 불어온다. 메마른 대지 위를 스치던 바람에 걸린 갈대 잎사귀는 서걱거리고, 꽃술은 춤을 춘다.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딱히 노여워하지 않는다. 그저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을 춘다. 이 또한 지나가리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다와 섬, 습지와 갈대 그리고 한 줌의 햇살. 2014년 마지막 가을, 경기도 안산의 대부도와 갈대습지공원을 다녀왔다.



달이 만든 기적, 시화호 조력발전소



감탄이 나올 만큼 길게 뻗은 방조제 위를 달려 대부도로 향한다. 제방 왼쪽으로는 잔잔한 시화호가 오른쪽으로는 출렁이는 바다가 시시각각 다른 얼굴을 들이민다. 무려 12.7km에 달하는 방조제를 달려 처음 마주치는 곳은 세계 최대 규모라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다. 달의 인력으로 생기는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를 이용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조력발전소 옆으로는 문화관과 달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다. 더 바랄 것 없이 바다만 감상하고 싶다면 달전망대로 오르면 된다. 사방이 탁 트인 전망대의 통창문너머 길게 울부짖는 가을바다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연의 자연을 자랑하는 대부도 섬 구경을 원한다면 갈 길이 멀기에 발길을 재촉해야 한다.





섬이 아닌 섬 그림에도 섬, 대부도



인공적인 바닷길로 인해 이제는 섬이라 불리기 무색해진 섬. 그림에도 결국 대부도는 섬이다. 하루에 두 번 곳곳에 속살을 드러내는 너른 갯벌과 뉘엿뉘엿 몸을 누이는 해님이 풍경 등 섬이 가진 퇴색되지 않은 자연이 아직 그곳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섬 내 무려 74km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7개의 테마 걷기길, 대부해솔길을 품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큰 덕분에 구석구석 볼거리도 가득하다.



달전망대 주변으로 조성된 T-라이트 공원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여의도공원의 4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생태테마공원이다. 나무테크로 이어진 공원 입구초입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갈대의 바다다. 바람에 출렁이는 갈대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랑이는 코스모스를 따라 저 멀리 보이는 풍차를 향해 걷는다. 곳곳에 조형물과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인이나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이기도 하다. 생각보다 광활한 갈대밭에 발이 묶인 채 한동안 자리를 지킨다. 때마침 들리는 피아노소리(공원 내 피아노가 자리해 관람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에 까지 귀를 기울이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바닷길이 열린 시간 내 가야할 곳이 있기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길에 선다.

섬의 반대편을 향해 신나게 달리다 보면 등주염전이란 뜻밖의 이정표와 만나게 된다. 이 계절에 눈처럼 새하얀 소금을 만나기란 어렵다. 하지만 섬 안의 염전은 고즈넉하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뜻밖의 운치를 자아내니 사진촬영에 욕심이 있다면 들러볼만하다.



바다 사잇길의 특별한 착각, 누에섬





그리고 드디어 섬 꼬트머리 좁 등대섬으로 향하는 길에 오른다. 조그맣게 웅크린 모양새를 보자니 왜 이곳의 이름이 누에섬인지 묻지 않아도 알 듯 싶다. 아담한 섬 안 더 자그마한 등대를 품고 있는 이곳의 바닷길은 하루 두 번 열린다. 길이 열렸을 때라면 갯벌 사이로 걸어도 좋고, 물이 차오른 후라면 해지는 풍광 역시 일품이다.



오늘은 걷기로 한다. 가을바람이라고 만만히 보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낮게 날던 갈매기가 바람에 뒤뉘거린다. 저만치쯤에는 목이 유난히 길고 하얀 풍력발전기가 소란스럽게 제 몸을 돌리고, 꼭꼭 여민 옷깃사이로도 찬바람이 밀려든다. 그럼에도 등대를 향해 걷는다. 목적지가 저 앞인데 예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걷는 동안 한 쪽에서는 단돈 몇천원에 허락되는 갯벌체험으로 부산한 이들의 굵은 등과 여전히 바람과 씨름하는 갈매기가 보인다. 사실 등대는 거창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저 그 등대와 섬을 향해 걷는 그 길이 특별한 것이다. 머리 위로 내려앉은 가을 햇살 한 줌과 사방 피할 곳 없는 망망대해에서 맞이하는 바람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파도소리. 눈을 감으면 세상 한 가운데 서있는 듯 드는 특별한 착각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행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남는 기억임을 확인케 해줄 것이다.



 **사연 많은 항구에서 맛보는 계절의 별미, 해산물칼국수**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누에섬에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길은 한결 수월하다. 바람의 방향이 슬그머니 등을 밀어주기 때문이다. 물에 올라오면 배를 닦은 모양새의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 있고, 다시 그 옆으로 는 탄도항이 위치한다. 한쪽으로는 새하얀 요트들이 경박해 있고 반대편으로 갯벌이 펼쳐진 이 소박한 항구는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시화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배로 닿는 외딴섬이었던 곳으로 수원 시에서 부천으로 다시 인천에 편입됐다가 1996년이 돼서야 안산시에 겨우 정착했다. 낚시터와 갯벌체험으로도 제법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곳의 가장 큰 진가는 해질 무렵에 발휘된다. 특히 이 계절처럼 일교차가 클 때면 더 붉은 낙조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쯤에서 배를 채워도 좋을 것이다. 이 근방의 먹거리 중 손꼽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나는 음식점 간판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마 몰라도 얼에 여덟은 해물칼국수라고 쓰여있을 것이다. 사실 탄도항은 규모가 작은 항구라 굳이 이 근처까지 찾아와 칼국수 집을 찾을 필요는 없다.



섬 내 어느 음식점에 가도 넉넉한 바지락과 새우 운이 좋다면 낙지 한 마리쯤은 통으로 들어있는 칼국수 한 그릇을 받아들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자신도 모르는 새 갯바람에 얼었던 몸을 녹이기에 시원한 칼국수 국물만한 것도 없다.



가을, 갈대 위에 몸을 뉘이다, 안산갈대습지공원



늦가을 안산여행의 백미는 역시 갈대밭이고, 안산에서 갈대를 보기 위해 달려갈 곳이라면 갈대습지공원이다. 자연을 정화하기 위해 사람 손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자연이 품어 키우고 있는 안산갈대습지공원은 갈대와 철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큰 걸음으로 다가온 바람이 갈대밭 사이를 지날 때면 그 발자국 소리가 서걱거린다. 서로 몸을 부비는 갈대의 잎사귀에서 나는 소리다. 얼핏 파도소리와도 닮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눈을 뜨자 제 흥에 못이긴 꽃술이 춤을 추고 멀찍이 철새가 날아든다. 지금 멈춰 선 이곳이 바로 가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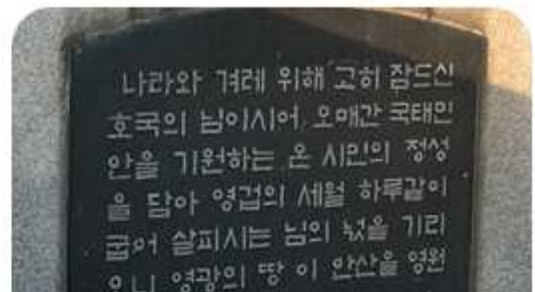


안산에 이처럼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이 자리한 이유는 사실 공장지대에서 흘러나온 폐수를 시화호로 흘러가기 전 정화하기 위함이다. 그 시작이 사람의 이기에서 시작됐기에 가을 햇살이 넉넉히 내려앉은 갈대밭은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답고 또 애뜻하다. 이곳은 또 사계절 철새들이 먼 길 찾아와 쉬었다 돌아가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습지의 주인은 엄연히 자연인 셈이다. 혹여 갈대나 철새를 관람할 때는 손님의 예의를 지켜 큰 소리를 내거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길, 최용신 기념관과 원곡공원 현충탑



잠시 자연 속에 오롯이 멈춰서 있던 몸을 일으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길을 나서다 보이는 이정표 중에는 눈에 익은 이름이 몇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최용신 선생이다. 학창시절 읽었던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 일제강점기 농촌 계몽을 펼쳤던 그녀의 일생을 모아 놓은 기념관과 묘소가 바로 지척이니 한번쯤 발길을 옮겨도 좋다.



발길이 쉬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 일 것이다.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상처는 아물어야 하고 아문 상처에는 흉터가 생겨야 한다. 그래야 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는, 다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도심 전체를 한 눈에 담고 싶은 욕심에 인근의 공원에 올랐다. 다문화지역답게 중국식 간판이 가득한 거리 한 귀퉁이를 지나 오른 공원의 이름은 원곡이었다. 안산지역이 한 눈에 들어오는 그 곳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한 현충탑을 비롯해 6.25 참전국와 용사비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어느덧 도심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 재잘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아파트 창문들을 바라보자 탑 아래 새겨진 오래전 이 나라를 지켰듯 이 도시를 지켜달라는 문구가 입안에 맴돈다. 다시 찾은 이 일상의 평온함이 지켜지길. 이 나라 안 모든 이들의 오늘이 안녕하길.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담백한 맛이 살아있는 개성편수



개성은 고려시대 수도였던 만큼 보쌈김치, 설령탕, 추어탕, 우메기, 경단, 편수, 약밥 등 다양한 요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개성편수다. 개성 지방의 편수는 둥근 만두피에, 다져서 양념한 갖가지 재료(고기, 으갠 두부, 배추김치, 삶은 숙주) 등의 소를 가득하게 넣고 도톰하게 빚어서 삶아낸 만두이다.

요리재료

만두피 20장
속재료 다진 소고기200g, 배춧잎 2장, 두부 100g, 숙주나물 50g,
다진 마늘 2큰 술, 다진 파 2큰 술, 소금 후춧가루 참기름 약간
초간장 간장2큰 술, 식초 1큰 술, 설탕조금



요리방법



1 다진 소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한 뒤 다진 마늘, 다진 파 1큰술을 넣고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버무려 놓는다.



2 배춧잎과 숙주나물은 살짝 데쳐 물기를 꼭 짜고 잘게 다진다.



3 두부는 물기를 짜고 칼로 으갠다.



4 1~3번의 속 재료를 한데 섞어 다진 파, 다진 마늘, 소금, 후추,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속을 만든다.



5 만두피에 속 재료를 넣고 양쪽 끝에 물을 묻혀 반으로 붙인 다음, 양쪽 끝을 모아 물을 묻혀 아기모자 모양으로 만든다.



6 초간장은 간장 2큰 술, 식초 1큰 술에 약간의 설탕을 넣고 만들어 준비한다.



7 빛어진 만두를 찜통에 20분정도 쪄내어 초간장과 함께 보기 좋게 담아낸다.



 요리연구가 나유신

전통혼례 후 먹었던 개성편수

'개성의 만두'라 불리는 개성편수는 네 귀를 서로 붙여서 세모꼴로 만드는 서울의 편수처럼 네모난 모양이 아니라, 둥근 모양으로 빚으며, 껍질이 얇고 소가 가득해야 맛이 좋다. 집집마다 편수에 들어가는 재료와 모양, 맛 등이 다양하다. 편수는 음력 6월 15일 '유두절'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원래 차게 먹지만 개성지방에서는 '편수국'으로 뜨겁게 즐기기도 했다. 또한 초례(전통혼례) 후 임매상(국수장국상)에 편수를 올렸는데, 속이 팍 차라고 편수를 신랑과 신부에게 먹인다고 한다.



북한음식 자랑하기 당선작



1. 안현숙

북한의 대표 음식인 어복쟁반을
제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보았어요^^



▲어복쟁반

2. 진광일

북한음식으로 유명한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입니다!
냉면이나 만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계시죠. 제가 봉사활동 나가는 곳에 할머니들이
봉사활동 나가면 수고한다고 간혹 해주시는데요. 북한
특유의 담백함과 자주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의
감칠맛이 있는 색다른 음식입니다.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결론으로 가끔 보는데, 쉬워보이면서도 쉽지 않은
조리법이더라고요^^ 암튼 남은 돕는 의미에서
봉사활동을 하지만, 이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을 먹는
재미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는 색다른 맛과 재미인거
같아요^^



▲두부밥과 인조고기밥

3. 강혁준

제가 먹어본 평양순대입니다. 솔직히 약간은 심심한 모양에 실망을 살짝 했지만 입어 넣어보는 순간에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고소하고 찰진 맛에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찾아서 먹고 싶어요. 아직까지 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평양순대

나도 편집장

내가 'e-행복한 통일' 편집장이라면!!

- 웹진에서 어떤 기사를 보고 싶으신가요?
- 웹진에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그룹, 회사, 팀)은?
- 웹진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기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펼쳐주세요~~~!!

**파일첨부
응모**

응모기간 2014.10.30 ~ 2014.11.23

응모방법 A4용지 0.5~ 1장 분량으로 서술한 후 파일첨부로 응모

당첨자수 3명 **시상내역** 3만원 문화상품권

(주의사항) - 검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생활 속 통일 단어찾기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을 발견해주세요~
'통일'이라는 글자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내주시거나 통일과 관련된 포즈(동작),
활동, 행사, 여행지, 작품 등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TIP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당첨확률 UP!**

응모기간 2014.10.30 ~ 2014.11.23

응모방법 <파일첨부로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서 응모해주세요.

당첨자수 3명

시상내역 3만원 문화상품권

<주의사항> - 검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파일첨부
응모

온국민이 함께하는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이벤트 5차



올해 10월~11월 사이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시도 권역별 예선 대회가 개최됩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민주평통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벌써부터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온국민을 대상으로 6주간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퀴즈도 풀어보고, 경품도 받아주세요~!

Tip1 6회 모두 참여하신 분께는 대박경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Tip2 중학생 당첨자에게는 나눠 먹으라고 1+1!

5차 Quiz

다음은 우리말과 북한말의 대응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 (1) 수중발레 - 예술해염 (2) 수화 - 손가락말 (3) 표준어 - 문화어
그렇다면 이야기그림은 우리말로 무엇일까요?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가발	덧머리	방화벽	불막이벽	우울증	슬픔증
계란	닭알	버튼	자동단추	잔소리	진소리
골키퍼	문지기	배우자	짝씨	장모	가시어머니
공휴일	휴식날	브래지어	가슴띠	창피하다	열스럽다
나이프	밥상칼	수중발레	예술해염	채소	남새
녹차	푸른차	수제비	뜨더국	컵	고뿌
만화	이야기그림	수화	손가락말	화장실	위생실
만화영화	그림영화	아리송하다	새리새리하다	해코지	남잡이
만장일치	일치가결원칙	어묵	튀긴고기떡	화장지	위생종이
미지수	모르는수	외래어	들어온말		

응모기간 5차 퀴즈 - 2014.10. 27 ~ 2014.11. 2

응모방법 하단에 비밀 댓글로 정답을 써주세요.
*중학생 참여자는 (중학생)이라고 써주세요.

일반경품 5차 퀴즈에 응모하신 분 중 20명을 추첨하여
도너츠 구매권(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대박경품 1차 ~ 6차 퀴즈에 모두 응모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푸짐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통일레시피 요리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an-77@hanmail.net [최우수상]	조영만
2	**ushin91@naver.com	곽석희
3	**usin79@hanmail.net	조예서



'통일의 별을 찾아라'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n7297@naver.com	수고했어 오늘도
2	**ueiris0705@naver.com	하모니
3	**ngthe@mail.com	아르헨티나
4	**amj26@naver.com	nuac
5	**onleehun@naver.com	훈
6	**myami1227@hanmail.net	yamyami
7	**k_3312@hanmail.net	통이르별
8	**00070@naver.com	수딩
9	**fsks@mail.com	설난
10	**swldu@naver.com	민아
11	**dqp68@naver.com	마미굿
12	**ddhr59@naver.com	ansdiddhr
13	**a0037@nate.com	바람꽃
14	**ks7682@naver.com	휘보리
15	**kkim@lycos.co.kr	아름이
16	**rhaps00@hanmail.net	보현

17	**tro@naver.com	강미선
18	**tistlyj@hanmail.net	예술의신
19	**sporter@hanmail.net	등근해
20	**91126@naver.com	1004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abobbiny@naver.com	010 - **** - 3129
2	**eoleoo@hotmail.co.kr	010 - **** - 5150
3	**ueiris0705@nate.com	010 - **** - 6913
4	**rwk17@naver.com	010 - **** - 1459
5	**ngo00@naver.com	010 - **** - 8692
6	**l2mom@hanmail.net	010 - **** - 0086
7	**1eal@naver.com	010 - **** - 0537
8	**oenixrx@hanmail.net	010 - **** - 6780
9	**ori0910@naver.com	010 - **** - 9118
10	**sim@naver.com	010 - **** - 9280
11	**inhwamm@naver.com	010 - **** - 4296
12	**spmy@hanmail.net	010 - **** - 2953
13	**lrhdi12@naver.com	010 - **** - 3521
14	**b2000@naver.com	010 - **** - 6544
15	**moo22@naver.com	010 - **** - 2426
16	**un0097@naver.com	010 - **** - 8121
17	**atmqwkd@naver.com	010 - **** - 0413
18	**9840527@naver.com	010 - **** - 2731
19	**talwin@naver.com	010 - **** - 5888
20	**e8585@naver.com	010 - **** - 6363
21	**lover@hanmail.net	010 - **** - 5556
22	**uccia116@naver.com	010 - **** - 9861
23	**fox@hanmail.net	010 - **** - 1886
24	**sroom@naver.com	018 - *** - 8769
25	**reny2002@hanmail.net	010 - **** - 4437

26	**mmymommy2@naver.com	010 - **** - 2005
27	**yman4242@naver.com	010 - **** - 4242
28	**esukangel@hanmail.net	010 - **** - 0795
29	**e6956@hanmail.net	010 - **** - 6161
30	**okhwa79@hanmail.net	010 - **** - 7745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행복한통일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3차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퀴즈 당첨자

☀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3차 당첨자

번호	닉네임	이메일주소
1	오늘도업	**ilman@naver.com
2	지영	**yeong9227@daum.net
3	역사통일짱	**dtn16@naver.com
4	꿀영	**751004@nate.com
5	김민준	**ppynolja2@naver.com
6	핑키스타	**ndo33@naver.com
7	도봉산	**k3105@naver.com
8	고정희	**ampoo913@daum.net
9	현준맘	**y7010@nate.com
10	물방울	**on6889@naver.com
11	강신순	**ess6586@hanmail.net
12	이은지	**gel6586@naver.com
13	윤쓰미	**n9447@naver.com
14	히힃	**ddms1551@naver.com
15	맷티튜드	**ch0616@naver.com
16	선효정	**heel7272@hanmail.net
17	렌틸콩	**bi713@naver.com

18	땀지	**qhdtks2tw@naver.com
19	이구갈	**s1899@hanmail.net
20	시원시원한 시원이	**iwon0316@naver.com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